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 '필요하다' 생각

중점 둘 사업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꼽아  
부처 이름 바꾼다면 '(양)성평등' 또는 '가족' 포함해야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이성준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본 조사는 우리사회의 중장기 변화 방향,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성평등 추진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성별·세대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평등 정책 수립 시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그중 본 원고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인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중점 과제, 변화 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음.

### < 조사 개요 >

구분	내용
대상	전국 만18~69세 성인 남녀 5,000명
방식	온라인 패널 기반 웹조사
표본	지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22년 1월 5일 ~ 1월 20일
조사내용	중장기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성평등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 등

##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필요성 인식은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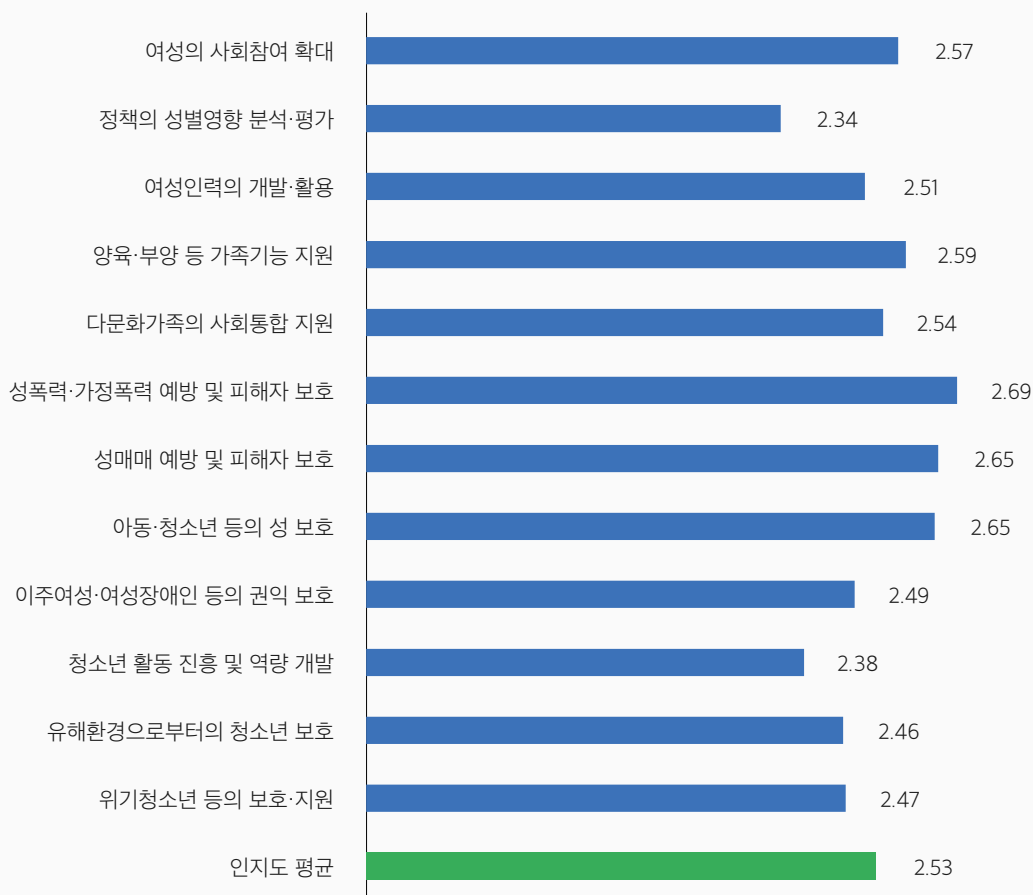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1~4점, 전혀 모른다~잘 알고 있다), 인지도 평균은 2.53점으로 다소 낮은 편임.

※ 사업별 '어느 정도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응답 비중은 40.0%~64.2%, 평균 54.0%임.

- 사업별로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2.69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2.65점), 아동·청소년 등의 성 보호(2.65점) 등 여성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음.

[그림1] 여성가족부 사업 인지도(n=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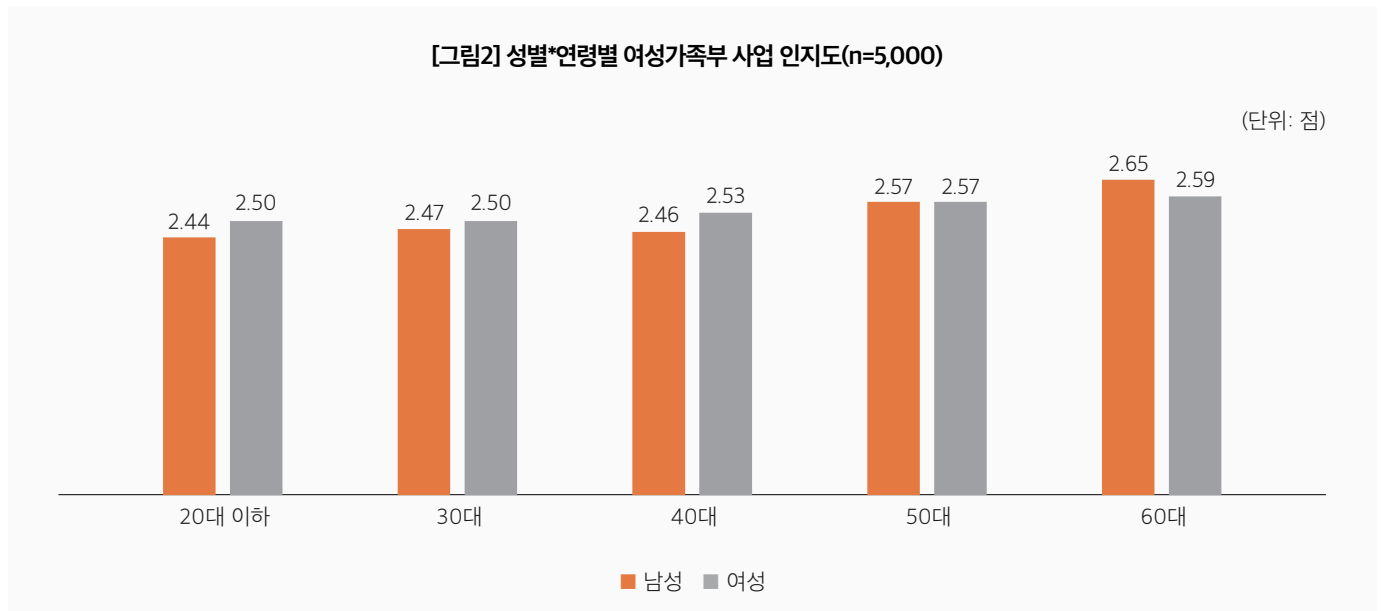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4점 척도(①전혀 모른다 ~ ④잘 알고 있다)로 조사한 문항

- 사업별 인지도의 평균 점수는 남성 2.52점, 여성 2.54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다만 남녀 집단 내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여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연령대별 인지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20대 남성은 2.44점으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나, 60대 남성은 2.65점으로 60대 여성보다도 더 높았음.



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4점 척도(①전혀 모른다 ~ ④잘 알고 있다)로 조사한 문항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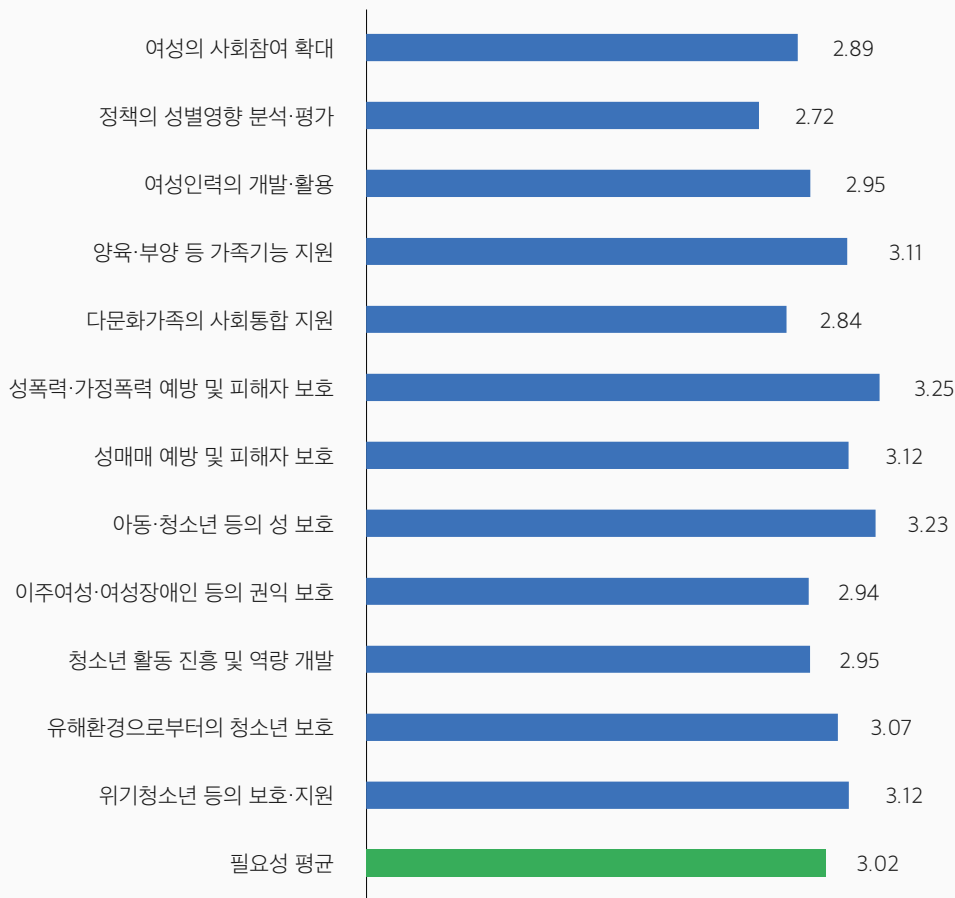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도를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1~4점, 전혀 필요없다~매우 필요하다), 필요도 평균은 3.02점으로 높은 편임.

※ 사업별 '어느 정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응답 비중은 67.1%~87.4%, 평균 80.4%임.

- 사업별로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3.25점), 아동·청소년 등의 성 보호(3.23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3.12점) 등 여성폭력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었음.

[그림3] 여성가족부 사업 필요성(n=5,000)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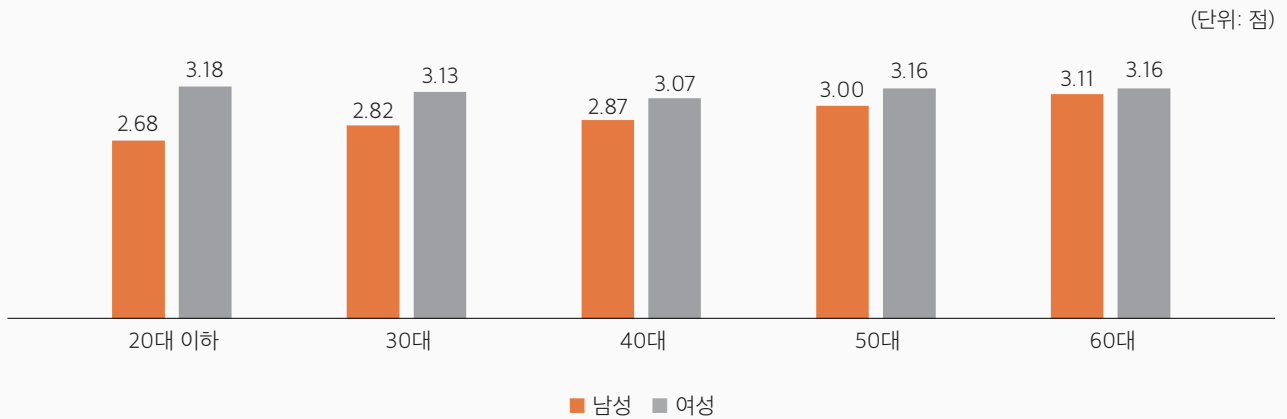


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①전혀 필요없다 ~ ④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한 문항

- 사업별 필요도의 평균 점수는 남성 2.89점, 여성 3.14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40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30대, 50·60대, 20대 순이지만 남성은 20대가 가장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50대와 60대는 남성의 필요도 점수가 각각 3.00점, 3.11점으로 높아, 같은 연령대 여성과의 격차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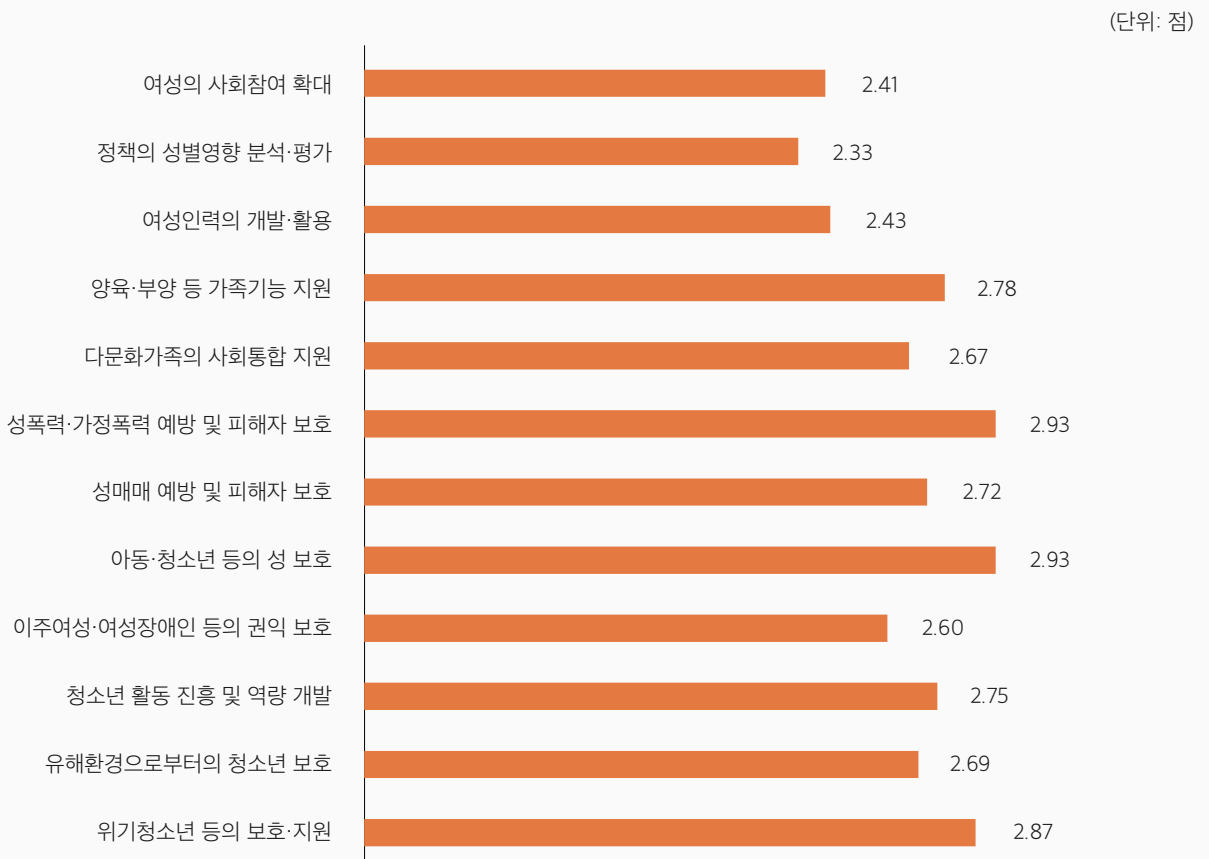
[그림4] 성별\*연령별 여성가족부 사업 필요성(n=5,000)



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①전혀 필요없다 ~ ④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한 문항의 평균값임

- 성별·연령별 집단 중 필요도 점수가 가장 낮은 20대 이하 남성도 한 개 사업(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을 제외하면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사업별로 ‘필요하다’ 응답 비중 53.3%~75%).

[그림5] 20대 남성 여성가족부 사업 필요성(n=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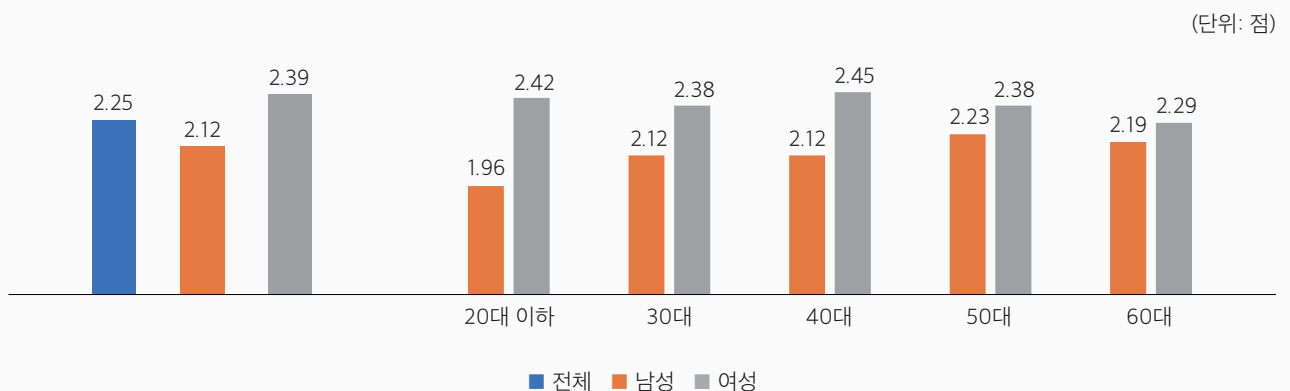
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①전혀 필요없다 ~ ④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한 문항

-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필요도는 국민 10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동의할 만큼 현재 여가부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성별·연령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 내 연령별 차이가 크지만 50·60대 남성은 같은 연령대 여성과 인지도·필요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여가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이하 남성이지만, 그럼에도 이들 역시 12가지 주요 사업 중 11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여성폭력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필요도가 모두 높지만,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정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 역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지도·필요도 모두 낮았음.

## 여가부 역할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 다소 많지만, 성차별·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 못 한 점 주로 지적

- 현재 여성가족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1~4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2.25점으로 다소 낮은 편임.
  -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2점, 여성은 2.39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도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음.
  - ※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응답 비중은 전체 57.8%, 남성 62.1%, 여성 53.3%임.
  - 성별·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20대 이하(1.96점)의 점수가 가장 낮고 50대(2.23점)가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60대(2.29점)가 가장 낮고 40대(2.45점)가 가장 높았음.

[그림6] 성별·연령별 여성가족부 역할·기능 수행 평가(n=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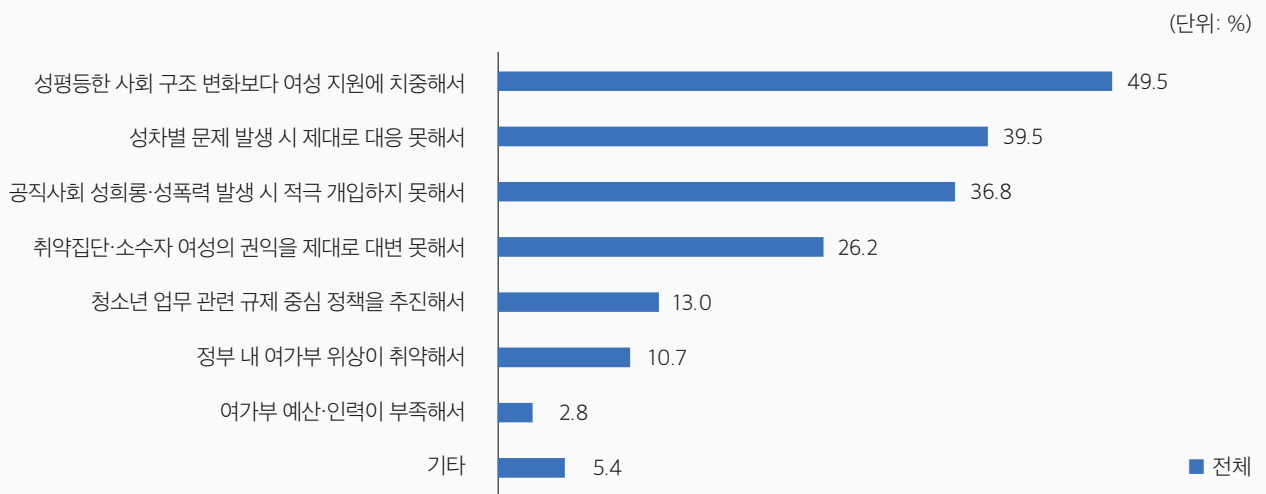


주: 여성가족부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④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문항의 평균값임

- 현재 여가부의 역할·기능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보기 중 2개까지 선택 가능),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49.5%)’,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9.5%)’,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36.8%)’ 비중이 높고, 정부 내 여가부 위상의 취약성(10.7%)이나 예산·인력 부족(2.8%) 등 행정적 여건을 이유로 꼽은 응답 비중은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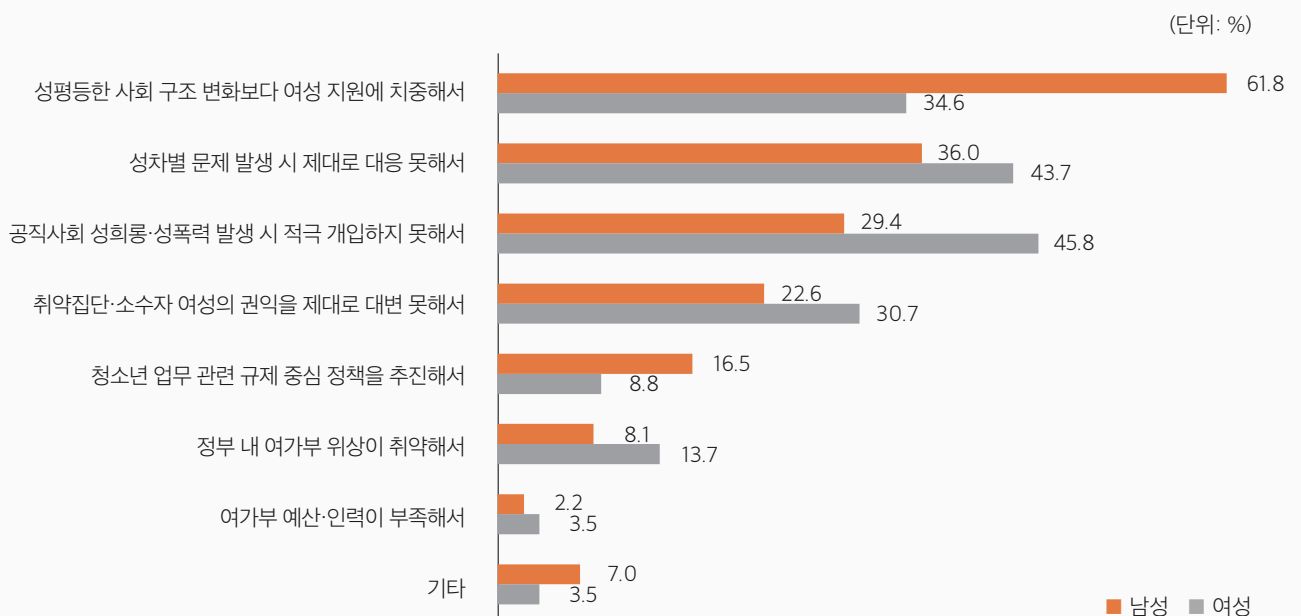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성평등한 사회 구조 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 61.8%,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36.0%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 45.8%,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3.7%로 두 가지가 비슷하게 가장 많았음.

[그림7] 여성가족부 역할·기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중응답, n=2,888)



주: 앞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기능 평가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을 선택한 인원만 응답(2개까지 선택)

[그림8] 성별 여성가족부 역할·기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중응답, n=2,888)



주: 앞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기능 평가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을 선택한 인원만 응답(2개까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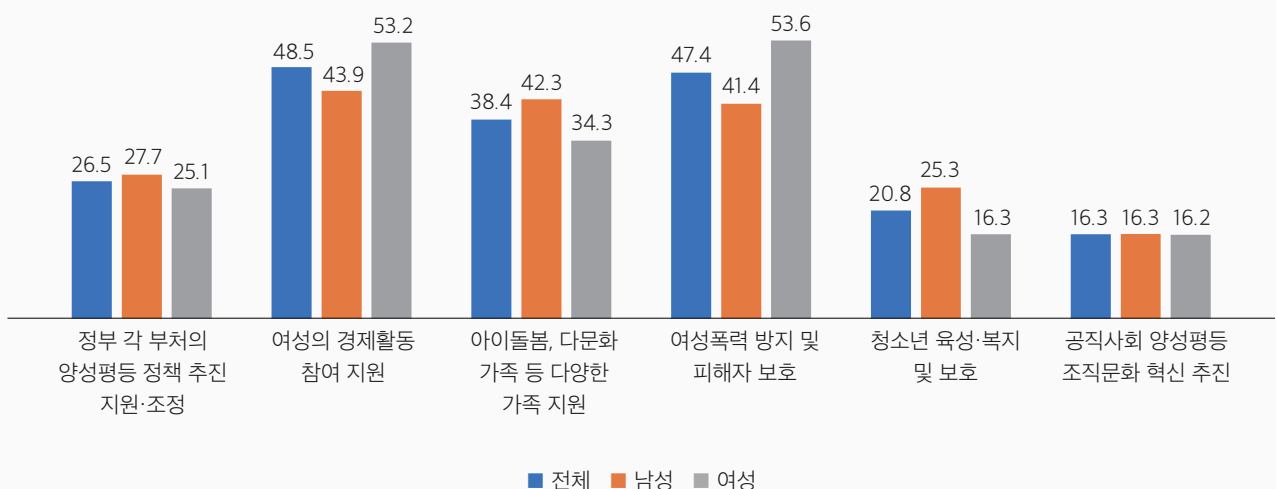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가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단지 청년 남성만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당수 여성 또한 성차별 사건이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사건 대응에 있어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였는지 평가하고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강화할 여가부 중점 기능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폭력 방지’, 부처 이름에 포함되어야 할 단어는 ‘(양)성평등’, ‘가족’, ‘인권’ 순

- 현재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 중 더욱 강화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2순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이 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47.4%)’,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38.4%)’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이 4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42.3%), 여성폭력 방지(41.4%) 순이며, 여성은 여성폭력 방지가 5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53.2%), 다양한 가족 지원(34.3%) 순임.

[그림9] 여성가족부 중점 강화 요구 기능(1+2순위, n=5,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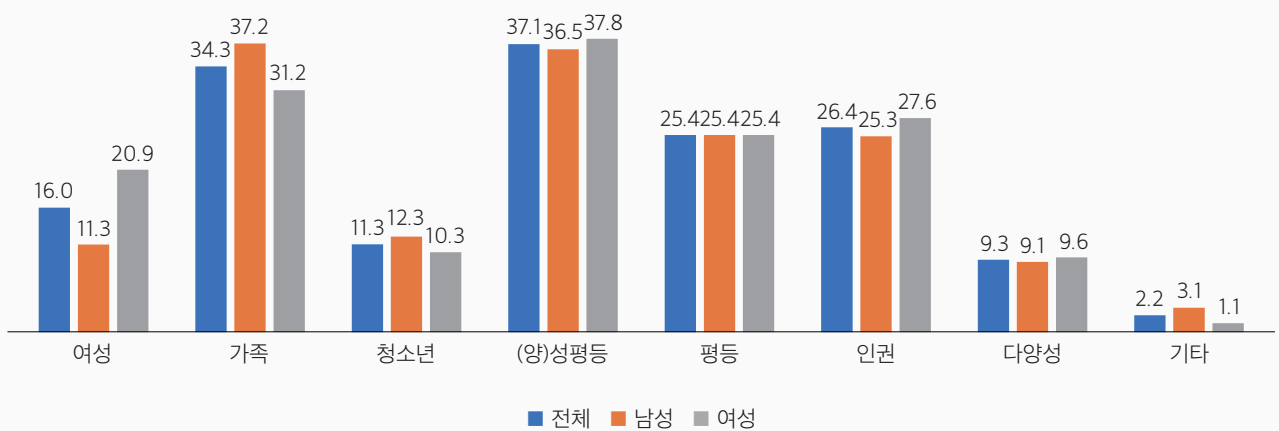


• 만약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꾼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보기 중 2개까지 선택),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34.3%, 인권 26.4%, 평등 25.4% 순이었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족(남성 37.2%, 여성 31.2%)', '청소년(남성 12.3%, 여성 10.3%)' 응답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고, 여성은 '여성(여성 20.9%, 남성 11.3%)', '인권(여성 27.6%, 남성 25.3%)' 응답 비중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나, '(양)성평등', '평등', '다양성'에 대한 응답 비중에서 남녀 차이는 크지 않았음.

[그림10] 여성가족부 개칭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단어(다중응답, n=5,000)

(단위: %)



주: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꾼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 조사(2개까지 선택)

→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 중에서 가족·청소년 업무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등 '여성 지원 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더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다면 여성, 청소년 등 정책 대상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보다, (양)성평등, 평등, 인권 등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마치며

-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 남성 중에서도 50·60대는 필요성 인식이 같은 연령대 여성과 비슷한 정도로 높았고, 필요성 인식이 가장 낮은 20대 이하 남성도 사업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이 더 많았음.
  - 다만 정부 정책의 성인지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알려진 정도가 적고 필요성 인식도 낮아, 이러한 사업의 의의와 추진 내용, 성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여성보다 남성, 특히 20대 이하 남성에서 높지만, 여성도 절반 정도는 여가부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특정 성별·연령 집단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임.
  - 그럼에도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보면, 대체로 여가부가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여성 지원보다 성차별적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는 여가부 사업 자체의 조정보다는 현재 부처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방식에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됨.
- 향후 더 강화해야 할 기능에 대해 남녀 모두 여가부가 가장 오랫동안 중점을 두어 온 ‘여성 지원 업무’를 꼽았다는 점, 부처의 명칭에 ‘(양)성평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줌.
  - 다만 아이돌봄·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부처 명칭에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 향후 여성가족부 개편이 추진된다면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돌봄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